AI 개요
미국 가정의 평균 재산은 조사 시점과 기준(평균 vs. 중간값)에 따라 다르지만, 최근 자료에 따르면

약 110만 달러에서 106만 달러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, 이는 상위 부유층의 영향이 크며, 실제 중간값(Median)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약 19만 달러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. 팬데믹 기간 동안 집값과 주식 시장 상승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났으나, 이는 소수 부유층의 자산 증가가 주를 이룬 결과입니다.

주요 수치 (2022~2024년 기준)

- 평균 순자산: 100만 달러 이상 (약 117만 달러, 106만 달러 등).
- 중간(Median) 순자산: 약 19만 달러 (2022년 기준).
- 빈부격차: 상위 1%가 미국 총재산의 약 30%를 보유하는 등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심함.

왜 차이가 클까요?

- 평균(Average): 최고 부자들의 자산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립니다.
- 중간값(Median): 일반 가구의 재산 상태를 더 잘 나타내며, 실제 절반의 가구가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

결론적으로, 미국 가정의 평균 재산은 100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높지만, 이는 부유층에 의해 왜곡된 수치이며, 대다수 가정의 재산은 중간값인 약 19만 달러 수준으로 훨씬 낮아 빈부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AI 개요
19만 달러(USD)는 현재 환율로 대략

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사이로 환산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실시간 환율에 따라 변동되므로, Wise 환율계산기와 같은 환율 변환 웹사이트에서 현재 시각의 환율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대략적인 계산 방법:

- 19만 달러 x (현재 환율, 예: 1,320원/달러) ≈ 250,800,000원 (약 2억 5천만 원)

- (오늘 날짜 2025년 12월 31일 기준, 약 1,320원/달러 환율 적용 시)

AI 개요
202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

평균 자산은 약 5억 6천만 원 후반이며, 평균 부채 약 9천 5백만 원을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. 이는 2024년 말 기준이며, 50대 가구의 자산이 가장 높고 소득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매우 큰 특징을 보입니다.

자산 및 부채 현황 (2024년 말 기준)

- 평균 자산: 약 5억 6,678만 원 (전년 대비 4.9% 증가).
- 평균 부채: 약 9,534만 원 (전년 대비 소폭 증가).
- 평균 순자산: 약 4억 7,144만 원 (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).

연령대별 평균 자산 (2023년 말 기준, 2024년 데이터와 혼재)

- 50대: 약 6억 452만 원 (가장 높음).
- 40대: 약 5억 6,122만 원.
- 60대 이상: 약 5억 4,836만 원.
- 30대 이하 (39세 이하): 약 3억 3,615만 원.

특징 및 격차

- 부동산 비중: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(약 65%).
- 소득 분위별 격차: 소득 상위 20% 가구는 약 1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, 하위 20% 가구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

자료 출처

- 2025년 12월 발표된 '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' 결과 (국가데이터처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공동 발표).